

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

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

첫째, 택배·카드회사에서 카드 발급 관련 전화 오는 경우 대응하지 않고 **전화 끊기**

둘째, URL주소가 있는 문자가 오면 **절대 클릭하지 않기**

셋째, 알려주는 카드사 고객센터, 사고예방팀 등 전화번호로 **전화하지 않기**

넷째, 알려주는 금융감독원, 검찰청 등으로 **전화하지 않기**

다섯째,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**계좌이체 하지 않고**,

지정해주는 직원(수사관 등)에게 현금, 수표 등 **전달하지 않기**

위와같은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경우 즉시 **112 신고하기**

"비밀 수사중이니 경찰의 말도 믿으면 안된다"는 말은 100% 보이스피싱입니다.

보이스피싱 통합신고 112

국민에게 총칙하고 유능한 **부산경찰**
부산광역시경찰청



제 목 **보이스피싱 특별 경보 알림**

○ 최근 부산 지역에 고액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연이어 발생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니, 각별히 유의하여 범인들의 전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

【 피해사례 1 】

'25. 11월초순, 부산 동구 거주하는 피해자 A씨(여, 70대)는 신용카드가 배송 중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, 카드고객센터·금감원·검사를 칭하는 사람에게 연이어 속아 11. 11. 부터 11. 14.까지 2회에 걸쳐 **1억3천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**, 지정해 주는 현장요원에게 전달하여 피해를 당하였다.

【 피해사례 2 】

'25. 11월하순, 부산 사하구 거주하는 피해자 B씨(여, 60대)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칭하는 사람이 "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.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" 라는 말에 속아 3회에 걸쳐 범인들이 지정해주는 계좌에 **1억2천만 원을 이체**하여 피해를 당하였다.

【 피해사례 3 】

'25. 12월초순, 부산진구 거주하는 피해자 C씨(남, 60대)는 대검찰청 검사를 칭하는 사람이 "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, 자산 검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", "피해자에게 골드바를 구매 후 현장요원에게 전달하라" 는 말에 속아 12. 3. 부터 12. 4.까지 2회에 걸쳐 **2억4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구매 후 전달**하였다.

부산광역시경찰청장

